



VI. 리얼리즘미술작품감상

리얼리즘미술(Realism)과 자연주의미술/ 19세기 중반

리얼리즘은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시작된 화파로, 실재하는 일상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반영하여 예술에 표현한 화파. 주제는 대부분 소외된 도시노동자나 농민들의 삶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다룸. 특히 쿠르베는 기성화단과 부르주아 계급의 기존 사회인식에 대해 비판.

쿠르베의 사상적 입장은 '회화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함을 주장하고 '지금 여기'의 모습을 그려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당시 영웅적 고전주의적 역사화나 낭만파 풍경화 역시 일상생활과의 연관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판함. 리얼리즘이란 단지 기법적으로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닌 주제 면에서 주변의 현실, 즉 노동자나 서민 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라 주장. 이를 통해 사회적 모순이 담긴 당시의 현실의 서민들의 삶을 폭로하고자 하였다.

자연주의 미술은 1800년대 중반, 당시 절정에 있던 낭만주의미술에 대한 반발에서 촉발된 자연주의는 현실을 선입견 없이 실험적으로 관찰하여 서정적인 분위기의 전원풍경을 표현함. 그들이 주목한 주제는 실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특히 도시를 떠나 시골에 정착하였던 바르비종파 화가들을 중심으로 직접 자연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겪고 체험하면서 실재하는 자연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아름다운 전원과 농민의 생활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상화된 현실이 아닌 주변의 현실이나 자연을 묘사하고자 한 자연주의 화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하지 않는 연출된 장면이나 공상표현을 배격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묘사할' 것을 주장하는 리얼리즘화가들의 시각과 공통점을 지닌다. 다만 차이점은 쿠르베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이 정치적이고 기성의 권위나 전통적 형식에 강한 거부감을 작품에 드러내고자 하였다면, 자연주의 화가들은 사회적 의식 보다는 자연 자체에 주목하고, 자연의 풍경과 농부들의 삶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공통적으로는 근대풍경화의 소재적 관심과 리얼리즘의 일상적 주제의식은 뒤따르는 인상파 회화에 깊은 영향을 줌.

VI. 리얼리즘미술작품감상

1. 리얼리즘미술의 형성배경

- (1) 19세기 과학과 기술의 태동. 계몽주의.평등사상.민주사상의 영향
(사회참여적이고 계몽주의적 사회환경),
- (2) 기존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지나친 상상과 이상화된 허구세계의 재현비판)과 현실비판 의식표현

2. 리얼리즘 미술의 표현적 특징

낭만주의·아카데미즘에 대한 투쟁으로 혁신적이었던 리얼리즘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한정하여 객관적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하려는 태도에서 출발, 리얼리즘의 대가 쿠르베는 "천사는 그리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라고 주장함으로써 현실을 벗어난 주제에서부터 이탈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 특히 시각을 중요시한다는 면에서 리얼리즘의 기법과 일상의 소재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줌.

- 1) 주제면-평범한 '삶의 세속성, 일상성'(현실과 사건의 냉정한 리얼리즘적 시선).
- 2) 기법면-보이는 대로 과장 없는 색감(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를 표현)

※ 리얼리즘의 의미-19세기를 기준, 이전 전통적 사실주의와 이후의 쿠르베중심의 리얼리즘적 사실주의로 구별. 즉, 전통적 사실주의(고전주의적 사실주의)는 19C 이전의 사실주의기법으로 그려진 미술로 기술적이고 이상화된 자연을 재현한 사실주의이며, 리얼리즘적 사실주의는 19C 이후 사실주의로서 쿠르베 이후의 사회의 실제 현실의 주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의 사실주의적 미술을 뜻함.

VI. 리얼리즘미술작품감상

3. 자연주의 미술(바르비종파- Barbizon, Ecole de)의 특징

자연주의 미술은 바르비종파를 중심으로 전개된 전원 속 야외에서 직접 사물을 관찰하고 바람, 광선, 구름 등 자연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드라마를 화폭에 담고자 함. 바르비종파는 19세기 중엽 프랑스 시골마을 바르비종에서 활동했던 일단의 풍경화가들을 지칭, 이들은 도시를 떠나 시골에 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겪고 체험하면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풍경을 표현.

- 1) 자연미의 탐구와 존중(전원의 리얼리티 구현- 자연의 다양한 정서와 느낌을 담아냄)
- 2) 풍경화의 독자적인 장르 확립(고전주의 쇠퇴로 자연주의적인 경향의 풍경화가 부상됨)
- 3) 농민생활을 선입견 없이 충실히 관찰, 재현함(농민에 대한 경외감과 종교적 숭고성 표현/리얼리즘 연관성)

※바르비종파

19세기 중엽 프랑스에서 활동한 근대 풍경화가의 집단. 명칭은 1830년경부터 그들이 살던 파리 교외의 퐁텐블로숲 어귀의 바르비종이라는 마을지명에서 유래. 퐁텐블로파라고도 함. 주요한 화가로는, 밀레, 루소, 코로, 뒤프레, 트루아용, 도비니 등이며 여기에 쿠르베 등도 가끔 참가함. 이들의 화풍은 자연에 대한 로맨틱한 감정과 서정적인 정취가 특색임. 바르비종 파의 화가들은 하나의 유파를 결성하거나 예술운동을 촉진시킨 것이라기보다 각자 다른 화풍으로 자연에 대한 애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자 함. 이들의 자연에 대한 로맨틱한 감정과 서정적 화풍은 후에 인상파 화가들에게 소재적인 면에서 영향을 끼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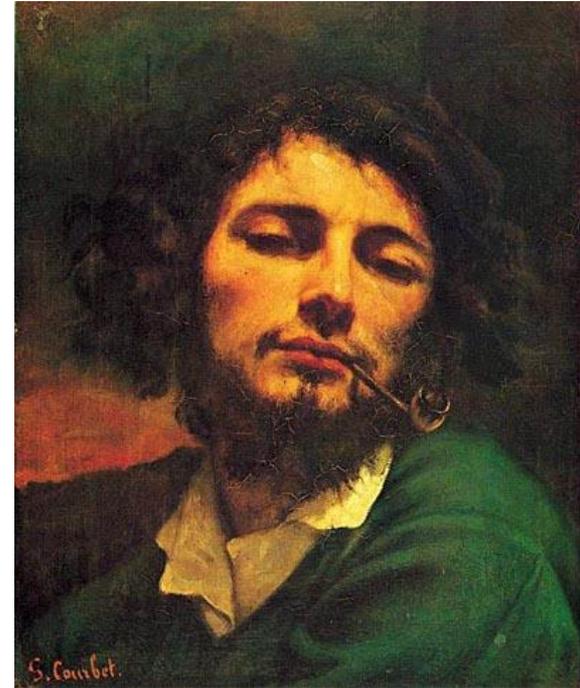
4. 리얼리즘 및 자연주의 미술의 대표작가

쿠르베(Gustave Courbet, 1819-1877년)/도미에(Honor Daumier, 1808-1879년)/ 밀레(J. F. Millet, 1814-1875년) / 코로 (J. C. Corot, 1796~1875년)

VI. 리얼리즘미술작품감상

1) 쿠르베(Gustave Courbet, 1819-1877년)

"나는 천사를 그릴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철저한 실증적 자세로 제작했다. 그는 평범하고 서민적인 것에서 소재를 찾았는데, 특히 하층 계급의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기존체제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근본적으로 당시의 고전적 이상화나 낭만주의적 공상표현을 배격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즉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로 돌린점에서 회화사에서 큰 의의를 남김. 대표작은 '오르낭의 매장'과 '화가의 아틀리에' 등임.



VI. 리얼리즘미술작품감상



돌깨는 사람, 쿠르베, 1849년, 160-259.1cm, 드레스덴 국립박물관, 2차대전중 소각됨

VI. 리얼리즘미술작품감상



오르낭의 매장(Burial at Ornans), 쿠르베, 1849~1850, 캔버스 유채, 311.5X668cm, 루브르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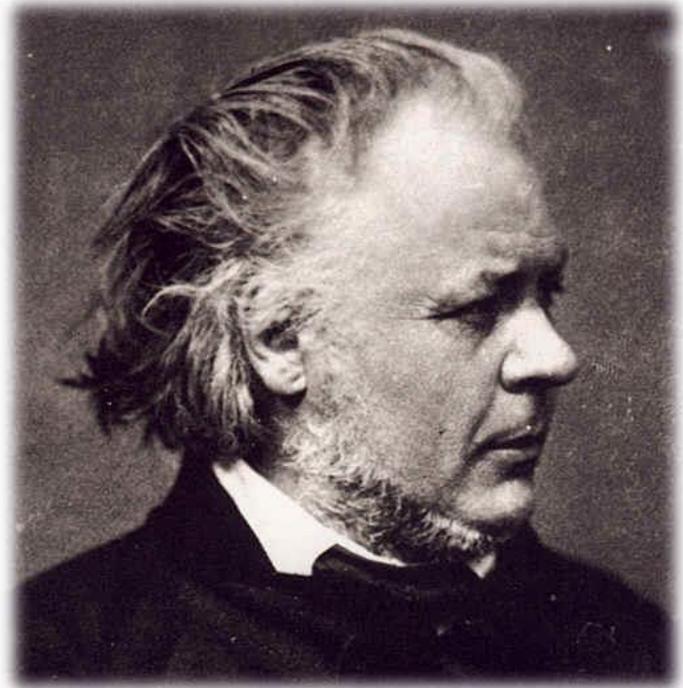
작가의 화실; A Real Allegory, 1854~55, 캔버스 유채, 361x598cm, 파리오르세미술관

VI. 리얼리즘미술작품감상

2) 도미에(Honore Daumier, 1808-1879년)

탁월한 풍자화가로 유명한 근현대 미술의 선구자. 독학으로 미술 공부 및 어린시절 생계를 위해 석판제작 시작. 시대의 부조리와 위선자의 모습 등 사회적 모순을 판화 기법을 통해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정치적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1832년 <라 카리카튀르>지에서 풍자화 제작, 국왕 루이 필립을 공격하는 정치풍자만화를 기고, 투옥됨. 이후 진보지인 <샤리바리>지에서 활약, 분노와 고통을 호소하는 민중의 진정한 모습을 휴머니스틱하게, 또는, 풍자적인 유머로서 제작함. 그의 화풍은 강렬한 명암대조를 통해 주제적 표현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독창적 화법을 구사하였다.

묘비명에는 "Here lies DAUMIER, Man of good, The great arist, the great citizen."라고 기록됨.





삼등열차. 1860년. 65x90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트랑스노냉 거리, 1834년 4월 15일, 1834년, 석판화, 44.5×29cm, 대영 박물관, 런던



가르강튀아 1831년 석판화, 30.5×21.4cm, 국립 도서관, 파리

VI. 리얼리즘미술작품감상

1) 밀레(J. Franiois Millet : 1814-1875)

도미에의 작품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음. 48년 최초의 농민생활 그림인 '곡식을 키질하는 사람' 이래 49년 바르비종 창시자 중 하나로 바르비종으로 이사, 농사와 농민생활의 모습을 담음. 이 시기 진지한 태도로 독특한 시적 정감과 우수에 찬 분위기가 감도는 작품을 확립, 바르비종파의 대표적 화가가 됨. 소박한 농민들의 모습을 종교적 정감이 감도는 숭고한 모습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오늘날까지 많은 이에게 추앙됨. 만년에는 사회적 명성과 영광을 누림.





이삭줍는 여인들, 밀레, 1857년, 83.82-111.76cm, 파리 루브르박물관



만종, 밀레(1814~75), 1859, 55-66cm, 오르세미술관, 파리



건초를 묶는 사람들, 밀레, 캔버스 유채, 54x65cm, 1850년, 파리 루브르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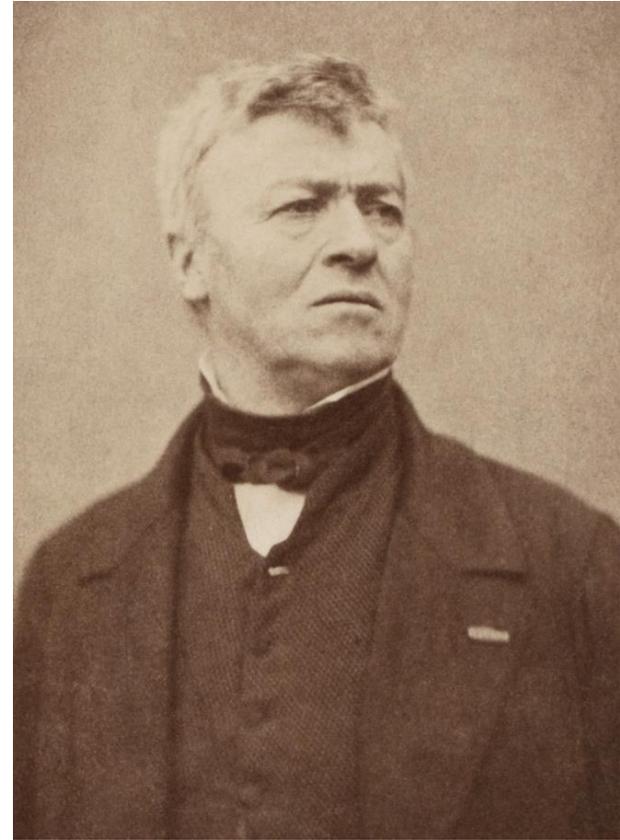
양치기 소녀와 양떼, 밀레, 1864, 캔버스 유채, 81.28 x 101.cm, 파리오르세이미술관

VI. 리얼리즘미술작품감상

2) 코로(Corot, J.B. Camille 1796~1875)

고전에 바탕을 둔 시적이고 우아한 풍경을 통해 인간사회의 세속적인 면을 정화하는 기품 있는 작품을 보여 주었다. 비교적 늦은 26세인, 1822년부터 미술수업 시작. 25년부터 2년간 동경하던 이탈리아에 유학, 자연과 고전작품을 스승으로 한 정확한 색가(色價)에 의한 섬세한 화풍을 발전시킴. 그 후 파리 교외의 바르비종을 비롯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뛰어난 풍경화를 남김.

그의 작품은 은회색의 부드러운 채조(彩調)를 쓰면서 우아하고 서정적 정경을 표현, 단순한 풍경임에도 시와 음악적 요소를 연상시킨 점이 특색임. 착실한 관찰자로서 자연을 감싸주는 대기과 광선의 효과에도 민감하여, 빛의 처리면에서 훗날 인상파화가들에 많은 영향을 줌.





모르트폰텐의 추억, 코로, 1864년, 65x89cm, 루브르미술관



돌풍바람, 1865-70년, 캔버스 유채, 46x58cm, 프랑스 랭스미술관

